

두분 어떤 사이세요?

안영희/국제아동지도자협회장

점원: 두분 어떤 사이세요? 친구는 아니고... 언니? 고모? 이모?... 글썄 궁금하네요...

딸: 우리 엄마예요.

점원: 어머, 친 엄마 맞아요?

딸: (장난스런 목소리) 아마 새엄마 인가보죠. 그러면서도 활동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칭찬에 싫지 않은 눈치다.

나와 딸. 내가 때론 동생이 되고 딸이 언니도 되고, 서로 친구도 되는 변화속에서 우리 사이의 시간을 잊고 즐겁게 대화하고 있노라면 나도 어느새 소녀가 된 기분이다.

우리아이 중학교 때, 아마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나 보다.

친구를 통해 선배오빠를 소개 받았구나? 그것도 얼굴도 안보고 전화로 만나는... 처음에는 매일매일 울렁이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설레는 모습을 보니 벌써 다 컸구나 하면서도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됐다고 야단치기 보다는 자라는 과정의 단계로 보고 난 딸의 동조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 오늘 오빠하고 통화했니?” “어때 기분 좋았어?” “무슨 얘기했어?...” 마냥 설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많이 경험해라. 그 호기심 존중해 주

자.’ 그 호기심을 누르면 반항아로 성장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로 했다.

한참을 전화로 교제 하던 딸아이는 어느날 “엄마 나 오빠 만나기로 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축하해. 만나고 나서 그 기분 엄마한테 보고 해라.”

“근데 엄마 그날이 그 오빠 생일이래.”

“그래? 그냥 만날 수가 없지. 엄마가 생일 선물 사줄게.”

“근데... 엄마.... 나 혼자 못 만나겠어. 엄마도 같이 만나자!”

이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는 날, 나도 얼떨결에 데이트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야기 많이 들었다. 어느 학교 다니니?”

부모님은? 공부하기는 힘들지 않니?”

등의 일반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너희들은 아직 학생인데 이렇게 만나는 것이 결혼 목적도 아니고 남, 녀 이성간의 연애도 아닐테고 성혜는 오빠가 없고 너도 여동생이 없으니까 좋은 동생으로 오빠로 만나면 서로 대화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니? 아줌마한테 가끔 전화해서 엄마처럼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사달라고도 해... 우리 식사시간이니 맛있게 먹자. 그리고, 생일축하한다. 오늘 너희들 첫 만남이니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꺼야,

함께 시간 보내고 아줌마 사무실이 이 근처니까 8 시까지만 동생 데려다 주면 된다.”

규정시간안에 아이는 들어왔다.

“재미있었어?” “응, 그냥 그래.” 그 후 몇 차례 만나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아이의 반응을 기다렸다. 야단치고 억제하고 하지 마라, 억누르면 누구든지 더 하고 싶은 마음인데 오히려 오픈해 주니까 별 호기심이 없는가 보다.

떻게 하면 좋을 지 모르겠어.”라고.

하지만 속으로 웃는다. ‘그게 처음부터 쉽게 되는 일인 줄 아니?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대화로 친구처럼 지내며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지.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도 아니요 그러니 더욱 내맘대로 안되는 건데’ 하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고 대화로 친구처럼 지내며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이해해 줘야지 내 품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내 소유물도 아니요 그러니 더욱 내맘대로 안되는 건데 하고 말이다.

아이는 그 다음부터 시큰둥해서 그냥 친구처럼 가끔 대화하고 있다고 내게 얘기해 준다.

그 다음에는 학교 선배, 친구, 관심있는 남자친구들이 생길때마다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고민을 의논하곤 했다.

항상 곁에 있는 친구같은 엄마로서 말이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딴 짓 몰래하는 아이보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딸이 고맙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한다.

그 딸이 벌써 숙녀가 되어 사회에서 활동을 한다. 항상 당당하고 자기 표현 정확하고 의젓하며 어른스럽게 착하고 예쁘게 자란 우리아이를 보고 때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어쩐 네 딸은 그렇게 어른스럽니?”

난 요즘 우리 아이 때문에 골치를 썩는다.”

사사건건 신경질, 반항 그리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무슨 말이든지 엄마는 몰라도 돼, 또는 너무 세대차이 나서 싫어. 라고 하는데 정말 속상하구나?

“또 공부한다고 하면 상전 모시듯 해야 하고 어

그 딸이 커서 요즘은 오히려 엄마를 챙긴다.

저도 바쁠텐데 저녁이면 발마사지, 밖에 나가면 보디가드까지.

어른을 보면 존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해 할 줄 아는 딸을 보며 가슴 뿌듯해 진다.

그 동안 자녀교육을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 행복감을 위해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정의 벗 독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참다운 부모교육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최고라는 걸...

난 요즘도 여기저기 부모교육 강연을 다니면서 나의 실무사례를 그대로 얘기하곤 한다.

부모교육 특별한 것 없어요.

단 아이의 눈 높이에 맞춰 내 마음을 비웠다는 것 밖에...

이쯤 해서 글을 줄여야 겠다. 딸아이와 데이트가 있어서.... PPKK